

육용종계에 대한 점감 점등 방법

강 태 항
 <예 산 농 전 교 수>

최근 닭에 대한 광선관리(光線管理)는 닭사양 관리의 필수적인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양계업자들이 닭에 대한 점등사육(點燈飼育)을 실시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음은 대행한 일이다. 여기에서는 육용종계에 대한 광선관리(점등방법)를 기술코져 한다. 육성계의 성성숙(性成熟)을 늦추기 위하여 조사시간(照射時間)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즉 “점감—점증”이란 방식으로 전반의 점감은 닭의 성성숙도에 폐 영향을 미치지 한다. 닭의 성성숙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최근 “란” 및 “홀터”씨등에 의해서 에너지섭취 및 점등방법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고 고정 혹은 점감 점등하면서 사료의 제한 급여, 격일급여 방법이 성성숙 지연과 비만방지(肥滿防止)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하였다. 성성숙을 지연시킴으로서 어떠한 잇점(利點)이 있는가? 즉 초산일령(初産日令)을 지연시켜 초산시부터 큰알을 낳고 피—크—(peak)에 도달하는 시일을 단축시키고 최고의 산란을 기간을 연장하고 대란율(大卵率)을 높이며, 기형란, 왜소란, 소란등의 생산의 감소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크다. 또 한편으로는 사료효율의 향상, 폐사율감소, 종란수량의 증가, 부화율의 향상, 강추(強雛)의 생산등에 효과적인 것이다. “점감—점증” 광선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 (1) 첫모이를 주는날은 밤새도록 불을 켜주고 병아리가 모이를 먹고 물을먹기 쉽게 해준다.
- (2) 2일날 밤에는 침침한 불을 사용한다.

(3) 3일째 밤부터 3주령까지는 인공광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4) 4주령부터 불을 켜주기 시작하는데 최초의 1주간은 조사시간(照射時間)을 19시간 45분으로 한다.

(5) 24주령시에 14시간 30분이 되도록 매주 15분씩 조사시간을 줄여가며(Step down) 24주령부터 산란최성기(32주령—34주령경)에 도달할때까지 14시간 30분 조사를 계속한다.

(6) 최성기가 끝날무렵부터 매주 15분씩 24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시간을 증가시켜 준다.

(7) 매주 15분씩 증감하는 이유는 일조시간의 길이보다 조사시간을 변화 시켜주는 편이 성성숙도의 발전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8) 1마리당 1W의 비율로 전구에 샷갓을 씌워 실내 전체가 균등이 조명되도록할 것.

(9) 조사시간은 산란기에는 절대로 단축시키지 말 것.

(10) 더운때 또는 더워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닥쳐올때의 연장은 아침일찍 서늘할 때에, 추운때 또는 추워지기 시작할 계절에는 저녁에 따뜻한 시간에 연장을 많이 해줄 것.

전구 및 반샷갓의 상태	조도(照度)의 비교		
	1. 2m	2. 4m	3. 6m
깨끗한 전구, 깨끗한 반샷갓	240와트	60와트	25와트
깨끗한 전구, 반샷갓 없음	160 "	40 "	15 "
불결한 전구, 불결한 반샷갓	160 "	40 "	15 "
불결한 전구, 반샷갓 없음	100 "	25 "	10 "

(11) 매주 1회 전구 및 갓을 닦아줄 것.

지금 참고로 바닥에서 전구까지의 거리 및 깨끗한 전구와 반사갓, 불결한 전구와 반사갓등이 밝기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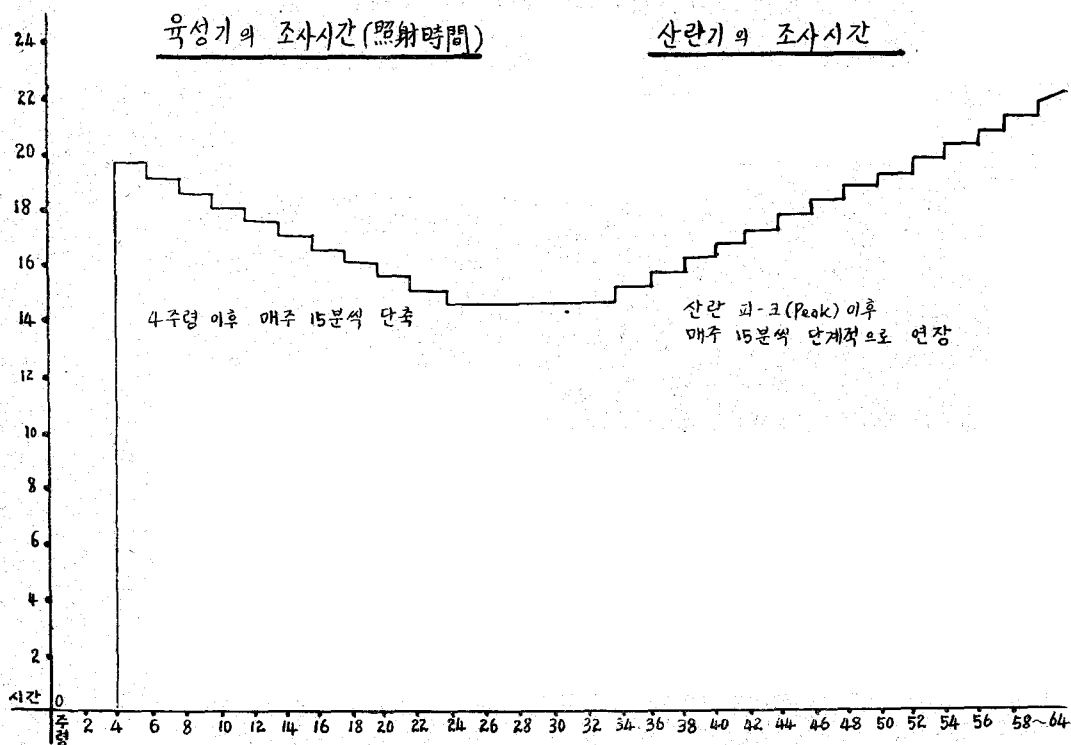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상 깨끗한 전구와 반사갓을 쓰도록 할 것이며, 전구의 높이는 바닥에서 1.8m~2.4m가 좋으며 반사갓의 직경은 25cm~30cm 정도의 것이 좋고 또한 백색 전구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다. 전선(電線)을 쥐

가 썰어 끊어졌다던가, 전구가 깨져 불이 안들어 오는 전구가 있으면 수시관찰하여 점등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사의 관리자나 농장의 경비원은 누전 및 기타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만 한다.

“점감-점증” 점등방법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 표와 같다.

점 감 점 증 법 (Step down - Step up)



이상과 같이 “점감-점증”의 점등 사육을 수 년간 실시하였던바 확실히 성성속이 3주간 내외 지연되어 대란생산과 피크(peak)에 도달하는

시일이 단축되었으며 최고산란기간이 연장되었고, 부화율의 향상과 강추(強雛)의 생산을 기할 수 있었다.